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3호 【루계 제25506호】 주체105(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지난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동해지구에 또 하나의 자랑할만한 수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고 평가하시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올렸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는 돌아내리기, 내리지치기 등의 종목으로 진행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경기를 보시며 조선이 세계적인 스키강자들을 얼마든지 배출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체육은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로씨야의 스뿌트니크방송, 중국국제방송망, 일본의 지지통신,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로동일보》, 《흑룡강일보》, 브라질신문 《오파 도 뽀보》와 나이제리아, 민주콩고,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으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도이췰란드의 인터네트홈페지는 이 소식과 함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실었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경기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것을 제일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포병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통신은 또한 김정은명도자께서 김영조영웅추격기련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방공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는 비행사들의 자질이 높은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이 불의에 진행되였지만 비행사들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여있다는것을 과시한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꼼메르싼뜨》, 텔레위TV방송, 인터네트신문 《에지나야 꼬레야》, 인터네트잡지 《뎀쉬위》,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베네수엘라 텔레쑤르TV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들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뽈스까지부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마식령스키경기-2016》을 관람하신 소식을,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공화국은 영원히 백승을 떨쳐나갈것이다

남조선 각계의 경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며 혁명무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경모심이 날로 뜨거워지고있다.

한 정치학교수는 글에서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고 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빛나게 이어지고있다고 썼다.

군사전문가들은 백두의 혈통을 그대로 이으신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오래전부터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보좌하시며 당과 국가사업과 함께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도해오시였다고 밝혔다.

《KBS》, 《MBC》, 《CBS》방송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에 대한 방문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의 계승을 시사하시고 선군로선에 변함이 없음을 내외에 천명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생전에 눈서리와 비바람을 맞으시며 걸으시였던 선군혁명의 길에서 키워내신 조선인민군이 오늘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지휘를 받고있다고 전하였다.

《경향신문》, 《국민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사진문헌들을 집중적으로 모시고 《폭풍헌지지도》, 《쉽게 볼수 없는 대과적》,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시찰의 련속》, 《군민이 열광하지 않을수 없는 시찰》 등의 글들을 련속 내보내여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 인터네트신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판문점시찰소식을 실으면서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의지자체를 완전히 꺾어놓고 종말을 고하게 하여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우러러보게 하였다는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시찰소식이 언론들에 실릴 때마다 각계층 인민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전선시찰로 조국수호전에 박차를 가하고계신다고 격정을 터쳤다.

인터네트언론들은 앞으로도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정치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리념, 방법론에 기초하여 펼쳐질것이며 북이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라는 내용의 글들을 대대적으로 싣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공화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승을 떨쳐갈것이라는 확신이 남조선 각계층의 심장속에 더욱 굳건히 자리잡고있다.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창조물들

올해 20여개의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훌륭히 일떠섰다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보다 빛나는 년륜으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올해에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꽃피운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울려퍼졌다.

우리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전국적으로 20여개의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이궁전, 배움의 요람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온 한해 눈부신 선경들이 펼쳐진 조국땅우에 희한하게 솟아오른 행복의 별천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의 참모습을 더욱 빛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후대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울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군민협동작전으로 무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였으며 련관단위들에서도 건설자재들과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철야전투가 벌어졌다.

씬만가지 국사가운데서도 아이들의 문제를 제일 첫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무한대한 힘의 원동력이 되여 나라의 곳곳에 아이들의 궁전이 희한하게 일떠섰다.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으로 온 세계가 들끓고있던 지난 1월 보육 및 교육교양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진 함경북도육아원, 애육원이 준공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자강도와 평안남도, 황해북도에 육아원, 애육원이 훌륭히 일떠서 원아들과 도안의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었으며 평안북도, 황해남도, 남포시에 행복의 요람들이 번듯하게 솟아나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받들고 육아원, 애육원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평양중등학원이 나라의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건설되고 사리원초등학원과 원산, 정성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로 일떠서 원아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공부하며 나라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태양의 열과 정으로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내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초급당중시사상을 받들어 전당강화의 지름길을 열어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에 접한 당일군들의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를 비롯한 기층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직접 관철하는 집행단위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과 당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영광과 환희로 끓고있으며 당사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킬 드높은 결의로 충만되여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화력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받아안은 박정남 강원도당위원장은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력사적인 결론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초급당조직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다.

우리는 초급당조직들을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도안의 모든 초급당조직을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최정예전투대오로 튼튼히 다지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는데 당적지도의 화력을 집중해나가겠다.

도안의 모든 초급당조직이 해당 단위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천만히 수행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는 신념의 결정체로, 수령과 대중을 혈연의 정으로 이어주며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제끼는 충정의 전위대오로 되게 하겠다.

문화성당위원장 량홍주는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력사적인 결론을 받아안고 당위원회안의 초급당조직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지 못한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당정책에 대하여 말로만 외우면서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일본새, 궤변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를 하는 온갖 사상적병집을 불태우고 모든 초급당조직들이 결사관철의 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자기앞에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 기본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창작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격동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을 자자구구 학습하고있다.
—철도성당학교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된 최정예대오로

연사군당위원장 최승일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각급 당조직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초급당을 중시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초급당을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집행되며 당정책의 운명이 초급당의 역할에 달려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군당위원회는 당의 초급당중시사상, 초급당강화방침을 받들어 초급당들을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된 최정예대오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겠다.

초급당위원장대렬을 한개 단위를 맡아 당의 의도에 맞게 일을 해제낄수 있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잘 꾸리는것과 함께 초급당위원장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겠다.

초급당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 군안의 모든 초급당들을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당의 사상과 조직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겠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3직장 초급당위원장 리정철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초급당위원장들은 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당중앙을 변 앞장에서 옹위하고 받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분신이 되여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전투현장에서 군중과 한데 어울려 일도 하면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첨입식으로 벌려 온 전투장이 만리마속도창조열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 전력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겠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화력중대와 같은 초급당조직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겠다.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 초급당위원장 박일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초급당위원장들에 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기대와 초급당조직들의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뼈에 새기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시기 초급당조직들의 기본임무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기본전투구분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것을 당정책관철의 근본열쇠로 확고히 틀어쥐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 제7차대회결정을 대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초급당위원장 리영호는 이렇게 결의다지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그 어떤 재앙이 닥쳐오고 천만시련이 겹쌓여도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강자, 열혈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그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겠다.

과학연구기관인 우리 단위의 실정과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정신상태에 맞게 5대교양을 옳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며 혁명과업수행을 기본으로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실천과정을 통하여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하겠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력사적인 결론에 접하고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래천군 은흥리당위원장 도정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오늘의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리당위원회는 핵심적인 군중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이 계급적본분을 잊지 않고 혁명과업수행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겠다.

뿐만아니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겠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가정주위환경이 복잡한 사람들과 현행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차별없이 따뜻이 품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우리 당, 우리 사회주의제도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하겠다.

초급당위원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장 김승일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활로를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는 모든 당조직들을 백절불굴의 전투대오로 정예화함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안의 초급당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여 모든 초급당을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

초급당위원장들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순간의 동요와 변심도 없이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겠다.

또한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대오의 기수, 기관차가 되도록 하며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철학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종업원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초급당위원장들을 당의 강화발전과 당정책관철의 제일선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화선정치일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겠다.

평양곡산공장 초급당위원장 김만손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접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겠다. 사업과 생활의 전과정이 종업원들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치는 멸사복무의 길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우리 초급당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 참된 당일군이 되겠다.

안악군 오국리당위원장 박승학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을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오늘의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리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겠다. 언제나 전투현장에 위치를 정하고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으로 대중을 이끌어 그들을 농촌의 참된 주인, 애국농민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겠다.

농장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진 립장에서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나가겠다.

평양체육단 초급당위원장 리근철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 접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기신 위대한 인민을 위해 당일군이 있다는것을 길이 자각하고 감독들과 선수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겠다.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감독, 선수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온 집단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체육단을 쇠소리나는 집단으로 꾸림으로써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실현의 앞장에 서겠다.

본사기자

정 론

황금해의 대경사 온 나라에 파도친다

만리마시대의 어로신화를 장쾌하게 펼쳐온 황금해력사창조의 3년 실록을 펼치며

강성번영하는 이 세월에 또 하나의 큰 경사가 났다.

위대한 황금해력사창조의 3년을 맞이한 이해에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바다만풍의 새 기적이 터졌다.

물고기가 폭포치며 쏟아지는 광경에 얼마나 가슴벅차오르셨으면 우리 원수님 대단하다고, 정말 희한한 풍경이라고, 우리 인민들이 이 소식을 전해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그렇듯 뜨겁게 말씀하시였으랴.

말로 듣던것과 화면으로 보던 감흥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황홀한 심경에 흠뻑 젖어들게 하는 동해포구의 수산기지들이였다.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며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

어디 가나 물고기가 차고넘쳐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였다.

랭동저장고마다에는 금시 문이 터져나갈듯이 물고기들이 빼곡이 차있었고 하루장은 하루장대로 련속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로 그야말로 물고기가 바다처럼 펼쳐져 쉬임없이 끓고있었다.

3년전파도 말랐고 또 지난해와도 달랐다.

얼마전까지도 9만여t의 물고기산을 쌓았던 우리 인민군대 어로전사들이 도루메기를 또다시 산더미처럼 퍼올렸다니 오늘의 이 경사에 그 누구의 가슴인들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지 않겠는가.

군인들의 몸에서 비린내가 물씬물씬 풍길 정도로 누구나 도루메기음식을 들며 웃음꽃을 피운다. 어찌 철령과 오성산을 비롯한 전선의 병사들뿐이랴.

온 나라 방방곡곡 두메의 산골집들에서도 바다향기가 차넘치고있으니 이 또한 흥하는 내 조국의 새로운 풍경이 아닌가.

동해지구와 잇닿은 도로들에 물고기비린내가 사라질새 없고 상점들은 물고기를 쌓아놓고 봉사로 흥성거리니 그야말로 사회주의바다향기 좋을시구, 바다만풍 좋을시구 어깨춤이 절로 나는 참으로 흥하는 시대, 풍성한 세월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지난 11월 동해포구를 찾으셨던 경애하는 원수님 희한하게 펼쳐진 물고기사태를 보고 또 보시며 하신 말씀 우리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준다.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여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미처 치리하지 못하는것이 걱정스럽다고,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이름할수 없는 격정을 터놓으신 우리 원수님.

천지개벽이란, 기적이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황금해력사가 시작된 첫해인 2014년에는 동서해에서 쌍으로 일어난 물고기사태에 격동하여 사회주의바다향기를 노래했었다.

그 다음해 2015년에는 또 어떠했는가. 하루동안에만도 지난 시기 한해 생산량과 맞먹는 물고기를 잡은 놀라운 기적에 너무도 가슴벅차오르시여 우리 원수님 몸소 이름지어주신 새 풍경-《이채어경》이 2015년의 내 조국의 황금해와 더불어 꽃펴난 새 자랑이였다.

그렇게 해마다 비약하여 올해 2016년에는 지난해의 집중어로전투기간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도루메기산을 쌓음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어로신화를 기록하였다.

물고기가 없다던 바다에서 물고기풍년을, 그 풍년에 이어 오늘은 물고기를 쌓아놓고도 넘쳐나 미처 치리하지 못하는 행복한 《고민거리》에로.

그 벅찬 현실을 직접 목격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때에 왔던 어로공들이 신바람나서 들려주던 이야기가 아직도 귀전에 생생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것처럼 도루메기는 정말 〈애국어〉입니다. 올해의 도루메기는 또 얼마나 크고 잡고잡아도 끝이 없는지, 정말 우리네 황금해에 〈애국어〉께 찾아든다, 이렇게 시라도 막 읊고싶은 심정입니다.》

《애국어》께 찾아든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황금해가 이제 더는 말이나 상상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산현실, 인민이 직접 향유하는 행복의 제보로 되었음을 소리높이 전하는 시대의 메아리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활속에 제일 많이 울리는 시대어-사회주의바다향기, 《이채어경》, 《단풍》호, 어촌단풍마을, 단풍어로공, 어로신화라는 말도 황금해와 함께 태여났으니 우리 어찌 황금해 3년과 더불어 이룩된 승리를 력사의 사변으로 목청껏 노래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포구에 차넘치는 물고기사태야말로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잘살게 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기쁨의 꽃바구니,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따라 질풍노도처럼 달리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경사중의 경사이다.

황금해력사창조의 눈부신 3년이 우리 시대에 주는 충격은 자못 크다.

이는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펼치는 우리 당정책은 과학이고 승리라는 진리를 현실로 장쾌하게 증명해보인 일대 장거이며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보위한 혼연일체의 또 하나의 튼튼한 만석이다.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희리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절절히 약속한 우리 당이였다. 사랑하는 천만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낮이나 밤이나 불타는 위대한 어머니의 소원을 꿈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제일 가슴후련하게 펼쳐놓았다는데 황금해의 크나큰 의미가 있다.

황금해, 이것은 결코 물고기보물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 나라를 세차게 격동시켰던 4,000여t의 물고기이야기를 잊을수 없다.

우리 당에 감히 도전해나섰던 현대판종파분자들에게 단호한 철추가 내려지던 그때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어로전사들이 억척같이 쌓아올린 4,000여t의 물고기산.

그것은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밖에 모른다는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의 분출이였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힘있게 떠민 비약의 봉화였다.

우리 원수님께 더없는 힘과 고무를 드린 8월25일수산사업소 지배인 윤용일동무와 깊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애국자들이야말로 지난 1950년대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호소를 강철증산으로 받들었던 강선의 로동계급과 같은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이였다.

돌이켜보면 5천년 민족사에 특기할 어로신화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수산전문가이시였고 수산전선의 사령관이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내 조국의 동해는 세계의 손꼽히는 어장으로 이름떨쳤고 이 땅의 집집마다에 물고기두름이 사철 드리워있는 행복한 풍경이 년년이 펼쳐졌다.

그러면 수산업이 시련을 겪게 된것은 우리의 전진을 피를 물고 가로막아나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때문이였다.

극심한 연유사정과 배와 어구의 부족…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바다농사에서도 조선이 신심을 잃고 주저앉게 하자는것, 그로 하여 당과 제도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을 허물어뜨리자는것이 원쑤들의 간악한 흉계였으니 악착하게 가해지는 제재와 봉쇄속에서 수산부문을 다시 일으켜세우는것이야말로 적들과의 또 하나의 포성없는 전쟁, 사회주의수호전이였다.

이 전쟁의 승리가 빛나게 이룩되였으니 이것은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고야마는 선군조선의 승리,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당풍이 안아온 인민 만세의 뇌성이다.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좋은 징조, 더 큰 비약을 예고하는 승리의 봄우뢰이다.

그 어느 분야보다 뒤떨어졌던 수산부문, 많은 투자와 시간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물고기풍년을 안아왔다는것 자체가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의 일대 과시이고 앞으로 더 크게 소리치며 잘살 날이 오고야만다는 위대한 전환의 힘찬 고고성이다.

사회주의만복을 지향하는 인민의 꿈은 이렇게 하나하나 꽃피고있으며 로동당만세소리는 이렇게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소리높이 터져나오고있다.

황금해,

보배로운 인민의 그 바다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것인가.

누구도 몰랐다.

지난 11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8월25일수산사업소에 오셨던 그 길이 예정되여있던 로정을 굳이 돌려 일부러 찾아오신 길인줄을.

8월25일수산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이기때문에 오늘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 수산사업소는 황금해력사의 첫 페지 1장에 올려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이 사업소는 올수록 정이 드는 사업소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실 때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그 얼마나 불덩이처럼 세차게 달아올랐던가.

우리 원수님의 정든 곳-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마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자주 뜨겁게 터놓으시던 심중의 토로를 듣는것만 같다.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나에게 정든 고장입니다라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뜨거운 교시에 시련의 눈보라를 뚫고 사회주의성새를 억척같이 수호하신 불멸의 자욱자욱이 비껴있었다면 동해의 포구를 자신의 정든 곳이라고 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에는 장군님 맡기고 가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내세우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의지가 함축되여있는것 아닌가.

사람들은 아마 이 나라의 많고많은 수산사업소가운데서 8월25일수산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으로 빛을 뿌리게 된 사연을 다는 모를것이다.

8월 25일!

잊지 못할 수십년전의 그날 우리의 어버이장군님께서 병사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찾아주셨던 사업소가 바로 이곳 수산사업소였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주는것은 수령님의 뜻이고 중요한 정치사업이라고 하시던 그 간곡한 당부가 깃든 우리 장군님의 또 하나의 애국유산, 그 유산을 지키고 더욱 빛내여갈 일념을 안으시고 우리 원수님 그 얼마나 절절히 말씀하시였던가.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기만 하면 고기잡이에 필요한 어구보장과 수리정비까지 내가 맡겠소. 나의 병사들을 잘 먹이는 일인데 적극 도와주겠소. 그저 물고기만 쌍쌍 잡으시오.

몸소 현대적인 고기배를 마련하여 보내주시고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고기배들의 명칭을 가을의 상징인 《단풍》호로 달아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푼푼히 먹이려면 그 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늠해보시며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4,000여t의 물고기를 잡으면 지배인이 현지로 기쁜 소식을 꼭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던 그날부터 정녕 숨죽었던 내 조국의 바다가 활력의 숨결을 내뿜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진정 물고기, 수산, 이것은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단순히 경제실무적술어이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심혈이 맺혀있는 고귀한 부름이였다.

물고기란 말만 들어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생각이 나서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인다고 하시던 그날의 그 모습, 우리는 죽으나 사나 수산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바람세찬 포구를 찾아 끝없는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생전에 자신께 수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을 하라고 정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나라의 수산업을 위해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시였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올것만 같은 우리 원수님의 절절한 음성이여.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표하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것만 같은 생각에 인민군대 수산기지를 찾아왔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정녕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다 합쳐 인민을 돌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에 어찌 무심한 바다인들 감복되지 않고 물고기폭포를 쏟아내지 않으랴.

황금해의 《애국어》께는 이렇게 찾아왔다. 자연의 해류를 따라서만이 아니라 하늘끝에 닿은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에 이끌려 왔다.

황금해는 그대로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바다이고 그 바다에 천만구슬처럼 어려있는것은 우리 원수님 뿌리신 헌신의 땀방울이다.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때로는 바람세찬 포구의 고기배우에서 우리 당 수산정책을 알기 쉽게 하나하나 해설해주시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어로전사들을 만나실 때면 너무도 기쁘시여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동지애의 뜻깊은 화폭을 남기시며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는 굳은 약속도 나누시였다. 새로 무은 고기배로부터 현대적인 어구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선경을 펼친 어촌단풍마을이며 어로공함숙, 먼바다를 타고앉은 제대군인어로공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깃들지 않은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바다는 많아도 인민을 위해 바치는 령도자의 심혈과 땀이 그대로 사랑의 바다를 이루고 그 사랑의 파도에 실려 물고기떼가 욱실거리며 인민에게 찾아오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황금해, 마치도 그것은 자식들에게 바치는 진정으로 늘 젖어있는 어머니의 옷자락이런듯, 쏟고 또 쏟아도 마를줄 모르는 젖줄기런듯…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그 진정 슴배여있는 우리 원수님의 수첩이야기를.

2016년 11월 16일, 올해의 이 어머니날에 우리의 원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기쁨넘쳐 찾아가신 곳이 있었다.

이 나라의 천만자식들이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엮어드릴 때 이 땅의 오직 한분 우리 원수님께서만은 자식들을 위해 걷는 걸음이 오히려 락이신듯 동해포구를 찾고 또 찾으시며 사랑과 정의 일력을 쓰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원수님 깊은 추억을 안고 품속에서 꺼내드신 수첩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몇해전 부모없는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하루에 물고기 300g씩 먹이려면 물고기가 얼마만큼 있어야 하는가를 몸소 계산해보시였던 사연깊은 그 수첩이였다.

그날을 추억하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난 아직도 그때의 수산부문 자료수첩을 가지고 다니오!

아, 그렇듯 뜨겁게 터놓으시며 필요한 물고기생산량을 또다시 계산해보시였으니 우리 원수님의 수첩,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위한 멸사복무를 인생의 더없는 멋으로, 보람으로 간주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어버이의 인생관이 응축된 또 하나의 실록이 아니였던가.

바치고 바쳐도 짐함없는 헌신의 생, 인민을 위해 언제나 끝없이 타오르는 그 심장의 불길은 우리 원수님께서 지니신 행복관, 인생관에 원천을 두고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올듯싶은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의 고백이여.

최전연초소들에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향기가 한껏 차넘치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해지고 만시름이 다 풀리는것 같습니다.

…

어기에 더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랴.

인민의 행복을 간직한 수산부문 자료수첩이 인생의 소중한 보물로 되고 물고기비린내도 더없는 기쁨으로 되는 이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여 내 조국의 바다가 그처럼 세상에 없는 황금해로 빛을 뿌리는것이다.

정녕 인민을 위한 헌신을 행복으로 간주하시는분이여서 뱃동한 물고기판을 그처럼 소중히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는것이고 차디찬 물고기절임랑크력도 금방석이런듯 여기가 내가 그전에 앉았던 자리구만, 또 한번 앉아보기요라고 하시며 소금기가 배인 곳에 스스럼없이 기쁘게 앉아보시는것이리라.

참으로 조선의 황금해가 기적이라면 그 기적의 창조자는 우리 원수님이시고 황금해력사창조의 승리이자 곧 인민에 대한 헌신을 행복으로 간주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생관의 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높이 쌓아올린 물고기보물산은 위대한 정신력이 응축된 위훈의 탑이라고, 인민군대는 지금 황금해력사창조의 갈피갈피를 자기의 뜨거운 충정의 땀방울로 씨나가고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해온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신력이다.

바다도 같은 바다이고 인민군대의 수산전사들이라고 하여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당정책을 법으로 여기고 당중앙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결사전을 벌린 바로 여기에 황금해 3년 승리의 비결이 있다.

1월8일수산사업소 어로공들이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조직해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신 사업소에서 우리들이 잡아들이는 한마리한마리의 물고기가 우리 당의 권위와 직결되여있다고 생각하니 조건타발, 우는소리가 아예 싹 달아났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당중앙뜨락과 잇닿아있는 사업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투쟁하니 불가능이 우리들의 발밑에서 모조리 무서워나가군 하였습니다.》

1월8일수산사업소의 전투원들이 전례없는 물고기잡이전투와 원아들을 찾아가는 물고기수송의 운행길로 우리 당의 인민관을 말없이 받들어갈 때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전투원들은 《사업소가 결의한 물고기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전에는 물에 닿을수 없다.》고 불같이 웨치며 물고기수송선과 가공모선에 물고기를 부리고는 또다시 먼바다로 질주해갔다.

당중앙이 정해준 침로따라 전속으로 내달리는 이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날과 달이 타오르는 불길이였고 지칠줄 모르는 열정의 폭풍이였다.

물고기잡이에는 비록 휴어기가 있었어도 15호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인민군대 수산부문 전투원들의 투쟁에는 휴어기가 따로 없었다. 어찌다 태풍으로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고민스러운 《휴식날》들엔 그물뜨기와 배수리에 온넋을 다 바치였다.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남편들의 투쟁에 고무되여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어로공안해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니 《우리는 어로공남편의 부사수》라고 긍지높이 말하며 물고기가공의 철야전투를 벌려나가던 그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감동적이였던가.

바다바람에 손이 터갈라지고 온몸이 언제나 고기비늘투성이였어도 그들은 멋진 옷보다 비옷과 장화부터 찾으며 물고기 한마리한마리를 정성다해 가공해갔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의 하루하루의 투쟁이 그렇듯 멋지고 언제나 그 결과가 《만드시》로 이어진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당의 권위를 보위하는 길에 목숨도 아낌없이 뛰여들었기때문이다.

목숨을 내대고 투쟁하는것과 눈앞의 실적만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하늘땅차이를 가져온다.

동해의 푸른 물결우에 우리의 육탄어로공들이 새기고 간 투쟁의 진리도 바로 이것이였다.

지난 10월 어느날 한기땅의 물고기라도 더 잡을 일념으로 만짐을 채우고 돌아서던 소형전착선 《541-70886》호가 그만 사나운 파도와 맞다뜰게 되였다.

얼음장처럼 차거운 바다물이며 초당 13~15m로 태질하는 바람…

육체가 점점 얼어드는 속에서 그들은 카라앉는 배우에 돌과 돌을 바줄로 잇고 서서 최후의 비상모임을 열었다.

선원들이 말없이 안겨주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휘장… 최후를 각오한 이들의 심장이 무엇으로 불타고있는가를 선장 장승철동무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충혁동무, 꼭 살아서 최고사령부에 우리의 투쟁소식을 전해달라. 우리 몫까지 더 많은 물고기를…》

《못 가겠습니다. 죽어도 동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릴, 우린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마지막용사는 울음을 삼켜삼키며 광란하는 남바다에 뛰여들어 차디찬 파도를 헤쳐가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전우들이 어깨를 겯고 마지막순간까지 부르는 노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불타는 소원》이였다.

어머니 우리 당은 돌아오지 못한 어로전사들을 혁명의 붉은기에 안아 로력영웅으로,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내세워주었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혁명학원으로 떠밀어주었다.

정녕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쌓아올린 물고기산이여서 그것을 바라보는 인민의 눈금은 그렇듯 뜨겁게 달아오르는것 아니겠는가.

사람들이여, 동해포구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셨던 그날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바다의 혁신자들의 진정의 목소리가 무엇이였는가를 우리 함께 가슴에 새겨보자.

《솔직히 며칠동안 너무도 아쉬워 눈물을 동이치듯 흘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비록 원수님곁에 서있지 못했어도 우리들의 정성이 깃든 물고기가 원수님께 기쁨이 되였다고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곁에 설수 있는 인생의 진짜자격, 우리 당이 기억하고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인간이란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이들처럼 오직 우리 당만을 받들면 그만이라는 지극한 량심과 의리를 지닌 인간들이다. 5월27일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처럼 조국멀리 먼바다에 떠있으면서도 저 하늘의 북두칠성에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가며 물고기증산소식을 조국에 전하는 기쁨을 가슴뿌듯이 맛보는 그런 행복감이 체질화된 인간들이 바로 시대가 바라는 애국자들이다.

이런 인간들은 수천리 먼곳에 있어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고 최고사령관의 전우로 불러주시기는 경애하는 원수님 먼 바다어로길을 이어가는 어로공들에 대한 애정의 뜻을 터놓으시며 얼마나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던가.

나도 동무들을 떠나보내면 동무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린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어로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전사는 령도자의 뜻을 따르고 령도자는 전사들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이런 혼연일체로 하여 바다만풍의 노래소리는 천만의 심장을 그리도 뜨겁게 울리는것 아니랴.

오늘은 만리마시대, 순간의 담보나 후퇴는 곧 수치를 의미하거늘 온 나라 천만군민이여, 동해포구에 일어번지는 혁신의 바람에 너도나도 심장을 따라세우라.

선단별 물고기잡이경쟁이 고기배당 물고기잡이경쟁과 어로공가족들의 가공경쟁으로, 수산사업소사이의 생산경쟁이 과학기술경쟁으로 번져지는 속에 우리 원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해주신 《황금해》애국주의상장과 《황금해》애국주의우승컵은 그 투쟁의 영예로운 1번수를 부르고있으니 집단적경쟁열풍이 인민군대 수산부문만이 아닌 온 나라에 불길처럼 세차게 타번질 때 광명한 미래를 향해 달리는 내 조국의 전진속도는 그 얼마나 빨라질것인가.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정, 불굴의 결사관철정신, 과학화의 굳센 의지, 집단적경쟁열풍, 바로 온 나라가 이 정신, 이 기풍으로 살며 투쟁할 때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할 꿈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투쟁 또 투쟁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간절하게 념원하신 인민의 락원을 우리 원수님 따라 기어이 이 땅우에 펼쳐놓자. 세세년년 그 락원에서 이 조선의 자손들이 행복의 열매들을 따들이며 기쁨속에, 노래속에 영광을 누리게 하자.

박 옥 경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올해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된 변혁적성과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우월성과 불패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며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높이 들고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힘있는 과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행정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직접적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한 혁명은 승승장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혁명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는것이 력사의 철리이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다. 사회주의는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인민대중자신의 힘으로 일떠세운 인민의 사회이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승승장구해올수 있은것은 혁명과 건설의 전 행정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철저히 구현해온데 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불굴의 기상앞에 전통한 제국주의반동들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다시금 뼈에 깊이 새기고 오늘의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 자주적인 삶을 누리며 존엄있게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우리 나라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철저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세워지며 인민의 높은 자각성과 열의에 의하여 집행된다.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관리의 주인, 경제와 문화생활의 주인, 창조자로서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고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여 국가의 정사를 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누구나 다 소질과 재능에 따라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그런 사회는 오직 우리 식 사회주의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지배와 착취, 략탈의 대상이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특권계층만이 정치를 좌우지하고 국가정책이 그들의 리익만을 대변하고있다. 절대다수의 빈곤한 평민들은 정치적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적버림을 받고있다. 《우리는 99%이다!》는 구호밑에 자본주의경제의 심장부이자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타오른 반월가시위가 80여개 나라의 1 500여개 도시에로 급격히 파급되였던 사실은 금융과두정치, 독점이 지배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정치상황, 경제상황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가 아니라 한갖 정치의 대상, 자본의 노예로밖에 치부되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귀결이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우고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이민위천,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절대적지위가 함축되여있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무한대한 생명력의 원천이 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 필승불패의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의 역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선생이며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의 전진은 곧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그들을 높은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모든 물질적재부들이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와 전민이 학습하는 체계를 통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자라나고있으며 날로 향상되는 물질문화생활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탁보로 되고있다.

력사의 창조자, 물질적부의 창조자는 인민이지만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요구가 실현될수 없다. 착취계급에게 필요한것은 자주의식으로 각성된 인민,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창조적인 인민이 아니라 저들에게 순종하는 노예이다. 사람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의 소유자로, 정신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할 교육이 자기의 사명과는 달리 시장화되고 신성한 교정이 돈벌이수단으로 전락되였으며 늘어나는 물질적부는 사람들에게 약육강식의 생활방식과 궤변궤덕을 주입시켜 정신육체적불구자로 전락시키는데 도움되고있다. 정신문화생활의 빈궁화, 창조적능력의 기형화, 이것이 미래가 없는 사회, 멸망으로 치닫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최대로 발휘되고있다.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천지개벽을 이룩하며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비상한 전진속도, 눈부신 비약은 천만군민을 자력자강의 투사로, 창조의 거인으로 키운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정과 불타는 애국심에 의거하여 전진해나가고있는데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이 있고 필승불패성이 있는것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는 가장 공고한 사회주의이다.

사회의 모든것이 누구를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제도의 공고성을 규정하는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세계의 주인,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그 향유자도 마땅히 인민대중이여야 하며 모든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최상최대의 사랑이며 헌신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되는 인민의 락원이다.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모든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뭇밤에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의 폐허우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될수 있은것은 인민의 아픔과 불행을 가셔주는것을 최대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낌없이 바치는 위대한 당의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락원이라면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의 무덤이다. 착취와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꿈속에서조차 상상할수 없다. 화려한 유흥가들에서 소수의 특권계층이 사치하고 무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을 때 거리와 물목마다에는 건축정책의 희생물로 된 집없는 사람들과 실업자들이 차넘치고있으며 각종 범죄와 류혈참극이 그치지 않고있다. 근로대중은 삶의 막바지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있으며 열점지역, 분쟁지역들에서는 피난민들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헤매이는것이 《인권옹호》를 부르짖는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 일떠서고있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기지들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 행복의 웃음소리 넘치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휴식터들을 보면서 우리 인민은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다.

멸사복무, 여기에 사회주의가 인민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된 비결이 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도 깨뜨릴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이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로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신조로 삼으시였던 이민위천의 사상,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이다. 착취와 압박,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인민이 주인이 되여 대대손손 복락을 누려갈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애국헌신의 장정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민족만대의 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고귀한 한생을 다 바치며 빛내여오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몸이 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도 과학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조 학 철

세상을 뒤흔든 백두산청년대군의 위용

경이적인 사변들과 기적들로 수놓아진 뜻깊은 올해에 세계는 다시한번 보았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최전성기를 맞이한 세상에 둘도 없는 주체의 청년강국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뜻깊은 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우리 청년들의 가슴가슴을 크나큰 격정과 새로운 결의로 무궁무궁 끓게 하였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난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피가 펄펄 끓어넘치는 선군청년전위들의 심장이 활화산마냥 분출했다.

청춘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창조하자!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전속으로!

비상히 앙양된 청년들의 기상은 이 땅우에 미증유의 영웅청년신화들을 낳았다. 지난 4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완공의 힘찬 뢰성이 온 세계를 진감했다.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거연히 일떠세운 발전소언제,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담대한 배짱으로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한 백두청춘들의 신념의 성벽,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전위들의 순결무구한 애국충정의 기념비였다.

백두전역에서 창조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온 나라 청년들의 심장의 피가 되고 박동이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고조격전장들을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했다.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전선으로 탄원하였으며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애국충정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영웅적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만도 만리마속도창조열풍속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상건설이 완공되고 많은 설비와 기대들이 《청년》호로 명명되였으며 청년들속에서 3년분, 2년분, 년간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수없이 배출되였다.

대고조전군에 과감히 떨쳐나선 청년들의 열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계기로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8월의 이 위대한 선언은 온 세계를 또다시 진감시켰다.

주체적인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것이다.

최상최대의 영광을 받아안은 청년전위들의 기상은 하늘에 닿았다.

온 나라가 청년관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졌다.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것을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해나갔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각 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켰고 1만 5 000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이 청년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열정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충정의 200일전투기간 전동맹적으로 500여개의 단위들이 부문별전형단위로 되였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가는 과정에 수천개의 초급단체가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수준에 도달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가 넘는 1만 2 000여개의 청년동맹, 소년단조직들이 한급 높은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와 영예의 붉은기학급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전 동맹이 창일의 공청조직처럼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되는 속에 선군청년혁불상 정위운동,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생산과 건설, 과학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청년들의 기상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사흘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한몸 내대며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북부피해지역의 청년들이며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바친 청년미풍선구자들,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선군조선의 체육신화를 련이어 창조하여 세계를 뒤흔든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

지난 70일전투기간에 비해 5배에 달하는 1만여명의 청년들이 탄광과 광산,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진출하였고 80만여명의 청소년들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붉은 피만이 심장마다에 맥맥히 흐르는 선군시대 청년명장들의 참모습이였다.

뜻깊은 올해 수많은 청년들이 돌격대활동에 참가하여 백수십개의 대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혁명의 총대,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았다.

전국적으로 1 500여명의 청년들이 3년분이상의 인민경제계획을, 4 400여명이 2년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으며 8만여명의 청년들이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많은 단위들과 청년들이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고 청년전위모범초급위원회,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닌 단위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이 온 나라에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우리 조국이 그처럼 젊음으로 약동하고 우리 혁명의 미래가 그렇듯 창창한것이 아닌가.

정녕 우리 당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대서사시로 엮어진 뜻깊은 2016년은 청년동맹의 빛나는 70년력사와 더불어 청년강국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력사적인 해, 청춘의 기상과 용맹이 남김없이 과시된 자랑찬 위훈의 해, 병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500만 청년들의 지위가 최절정에 오른 영광의 해였다.

본사기자 윤명철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리

각지 녀맹조직들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이후 각지의 녀맹조직들과 대회참가자들, 녀맹원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녀성동맹에 대한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대회참가자들모두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바쳐갔다.

평양시와 안주시의 대회참가자들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수많은 지원물자와 관리도구들을, 황해북도의 대회참가자들은 도혁명사적관에 필요한 많은 자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이런 깨끗한 충정은 도안의 혁명사적지관리소들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들에 많은 작업목과 관리도구들을 마련하여 보내준 평안남도안의 대회참가자들, 청산리혁명사적관에 수백점의 관리도구들을 넘겨준 강서구역안의 대회참가자들 그리고 량강도와 라선시 라진지구, 명간군안의 대회참가자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각지의 녀맹조직들과 대회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황해남도, 평양시, 강원도, 라선시녀맹위원회들에서는 서한의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자료와 학습제도를 만들어 아래녀맹조직들에 내려보내주고 분담식학습경연도 진행하여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서한의 체계와 내용을 환히 꿰들도록 하였다.

대회기간 서한의 원문을 완전히 통달한 정성시 양지동 초급녀맹위원장 류정실, 명간군 월포로동자구 초급해설원 박정애는 학습카드를 만들고 녀맹해설대활동을 강화하는 등 서한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앞장서나가고있다.

녀맹조직들과 대회참가자들은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충정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녀맹일군들을 초급녀맹조직들에 내려보내어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대회참가자들은 많은 지원물자들을 준비해가지고 신의주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장과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통등탄광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황해남도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을 불러일으켜 마련한 수천점의 부림소관리도구와 수십의 영양죽, 수천개의 호박꿀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송림시안의 대회참가자들은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전기로보수전투장에 달려나가 정치사업을 벌려 로보수를 2일동안에 끝내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천리마구역안의 대회참가자들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가스발생로직장과 보산제철소 화전로직장에 나가 힘있는 경제선동과 지원으로 로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으며 100여톤의 과철을 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을 지닌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녀맹위원장 강정화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많은 지원물자들을 준비해가지고 2.8직동청년탄광 5갱 탄부들을 찾아가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룡강군 애원리 초급녀맹위원장 김영희는 녀맹원들을 발동하여 많은 가마니를 생산보장함으로써 올해농사결속에 이바지하였다.

1천여채의 이불과 베개 등을 성의껏 마련하여 사리원초등학원과 전쟁로병보양소에 보내준 황해북도의 녀맹원들 그리고 평천구역 평천1유치원 녀맹원 차영란, 강동군 흑령로동자구 녀맹초급단체위원장 김명화, 원산시 갈마동 부문녀맹위원장 정영옥, 은천군 원유로동자구 부문녀맹위원장 차경순, 해산시 해강동 녀맹원 조춘심, 신계군시료수매종합상점 녀맹원 전룡숙, 천리마구역종합상점 초급녀맹위원장 최순옥, 평천구역 평천2동 녀맹원 김경희, 순천시 부흥동 녀맹원 김해경을 비롯하여 대회참가자들과 녀맹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미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본사기자 김향란

알곡증산에서 은을 낸 알비료성형기

문덕군 룡림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깊은층비료주기는 농작물비배관리에서 비료의 허실을 막고 그 효과를 높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널리 도입되고있다. 제43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 출품되였던 알비료성형기는 깊은층비료주기를 보다 손쉽고 능률적으로 할수 있는 알비료를 만드는 기계로서 많은 참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문덕군 룡림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장 김봉철동무가 새롭게 창안제작한 이 기계는 전국의 여러 농장들에서 지난 시기에 리용하던 알비료성형기에 비하여 여러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 기계의 우점은 우선 능률이 높은것이다. 휘발유를 투입하는데 필요한 한명의 로력만 있으면 한 시간에 한정보의 논에 깊은층비료주기를 할수 있는 충분한 량의 알비료를 생산할수 있다.

또한 동력소비가 대단히 적다. 전기를 리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6hp원동기로 가동시킬수 있는데 기름소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우점은 깊은층비료주기를 적기에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함으로써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한다는데 있다.

이 농장 제7작업반에서는 몇년전부터 가루비료를 알비료로 성형하여 깊은층비료주기를 해왔다. 이곳 작업반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 가루비료를 가지고 깊은층비료주기를 할 때에는 한개 분조의 로력으로 하루에 0.5정보의 면적밖에 주지 못하여 많은 로력을 들이면서도 그 시기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성형한 알비료를 가지고 깊은층비료주기를 하기 시작해서부터는 한개 분조의 로력으로 하루에 3정보이상의 논에 비료를 주게 되였다. 또한 가루비료를 논에 뿌려줄 때에는 비료효과가 10여일정도밖에 가지 못하였는데 깊은층비료주기를 하면 2~3배나 지속되였다고 한다.

결국 가을에 가서는 소출이 정보당 적어도 0.5t이상 증수되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실리적인가.

기계화작업반장은 권용삼동무와 함께 농장의 작업반들에서 리용하던 알비료성형기의 우점을 살리고 많은 동력이 드는데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부족점을 퇴치한 새형의 알비료성형기를 창안제작할 목표를 세우고 달라붙었다.

부족하고 걸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나 이들은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면서 수십장의 설계도면을 다시 그리였다. 그 후 여러차례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 나날에 이들은 알비료의 크기가 벼생육에 알맞게 성형되도록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었다.

결과 종전보다 생산량은 7.2배나 많으면서도 전력소비는 1/3로 줄인 능률높은 새형의 알비료성형기를 성과적으로 제작하여 알곡증산에서 은을 내게 하였다.

지금 농장의 기계화작업반으로는 이 기계의 제작경험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찾아오고있다.

이들은 그들에게 말해주고있다. 당의 의도대로 자기 힘과 기술에 대한 믿음을 안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워간다면 기계화작업반에서도 얼마든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해낼수 있다고.

박영진

에네르기절약형건물을 건설

황해북도체신관리국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천, 지하수, 지열탐사를 적극 벌려 지하수와 지열자원을 다 찾아내여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체신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최근 에네르기절약형건물을 새로 일떠세웠다.

이 건물은 지열과 생물질을 리용한 보이라로 랭난방을 보장하고 조명 및 사무용전력과 랭난방설비에 쓰이는 전력의 일부를 태양및전지판에서 생산한것으로 보장하는 건물이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체신관리국의 일군들은 도적인 본보기가 될 새로운 에네르기절약형건물을 짧은 기간에 일떠세울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통이 크게 달라붙어 일판을 전개해나갔다. 랭일, 리기영, 문창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알제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일군들은 건물의 설계를 특색있게 하여 에네르기를 최대한 절약하면서도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지게 하는데 힘을 넣었다. 연건평이 근 2 500㎡에 달하는 5층건물에 자연에네르기와 지열을 리용하여 랭난방을 보장하며 태양및전지에 의한 사무용전력보장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하였다.

우선 매 방들의 외벽을 이중벽으로 하고 창문은 이중창으로 설계하였으며 건물의 맨 웃층 층막우에는 보온재료를 덧씌웠다. 난방관이 놓이는 바닥에는 열이 오랜 시간 보존되는 잔자갈들을 깔고 인조석미장을 하도록 하였다.

에네르기절약형건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리원철, 양승석, 정철룡동무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주변에 풍부한 지열과 생물질을 리용하여 랭난방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지열설비를 설치하고 항상 14℃의 온도를 보장하고있는 땅속 60m깊이의 물을 퍼올려 리용하게 하였다.

관리국에서는 지열설비의 잠수뽐프와 실내순환뽐프의 동력은 태양및전지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리용하고있다. 또한 흐린 날이 계속되거나 해가 져 전기생산이 어려울 때에는 벼겨를써서 랭난방을 보장할수 있게 생물질을 리용한 보이라를 따로 설계하였다. 생물질을 리용하는 보이라는 벼겨를 태워 나오는 가스에 불을 지펴 그 열을 리용하게 하였다.

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열설비운영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기생산량을 더 늘여 앞으로 령에네르기에 가까운 건물로 만들기 위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비료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우리 당 과학기술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2016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2016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한 긍지높은 이해는 어떻게 시작되였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과학기술전당 준공식!

새해의 첫날 우리 당의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이 완벽하게 구현된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력사적인 새해 첫 혁명활동소식에서 우리 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영광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새해 총진군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그 열의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날에 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온 올해의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워 나갈데 대한 우리 당 과학기술정책의 위대한 생활력을 이 땅우에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았다.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

올해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정치에 올라선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과시하고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 영용조선의 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국방과학과 우주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강위력한 보검들을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승리와 영광의 해인 2016년의 장엄한 서곡으로 울린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의 장쾌한 폭음,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성공,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 성공,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또다시 대성공,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 실현…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으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는데 공헌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하시여 그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을 직접 수여해주시고 력사적인 축하연설도 해주시였으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최대의 특전과 특혜를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 뜨거운 배려에 고무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을 과학기술로 받들어나갈 충정의 일념을 안고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온 국방과학과 우주과학부문의 성과에 화답하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결심을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면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십년, 몇십년이 걸려야 한다는 첨단과학기술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개발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122호양표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양표장, 우리 나라 양표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하게 희한하게 전변되였으며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는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이 우리 식으로 보란듯이 일떠섰다.

우리의 미더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형의 트락토르와 화물자동차,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황금해》메럴의 만능화된 고기배를 비롯하여 농업과 철도부문, 수산업과 해상운수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제작해냄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첨단기술인 광자암호통신기술이 개발되였으며 첨단수준의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가 개발되여 산림조성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또한 통합생산체계와 공정자동화체계구축에 절실히 요구되는 수십종의 공업용정보기술제품들을 첨단수준에서 국산화하는 자랑찬 성과도 이룩되였다. 그리고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농약제품인 새형의 종자피복제가 연구개발되고 수백t능력의 생산기지가 건설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첨단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처럼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무시고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하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지식인의 슬기와 재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질풍노도쳐 내달리는 과학기술의 기관차

과학기술강국건설의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그 과정에 인민경제 선행부문, 중요공업부문을 추켜세우고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전력생산을 늘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적지 않게 해결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석탄연소첨가제생산공정과 석탄분쇄용볼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며 화력발전의 기본설비인 급수뽐프를 정상가동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북창의 대동력기지에서 전력생산의 힘찬 동음이 더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가 개발되여 국가적인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출수 있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력계통을 안정시켜 질좋은 전기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첨단수준의 설비관리체계인 우리 식의 수력타빈발전기용고장진단체계가 개발되였으며 자연에네르기분산형통합체계가 개발되여 여러가지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이와 함께 능력이 큰 풍력발전기들이 새로 개발되여 풍력에네르기리용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철강재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는 눈부신 과학기술성과들도 이룩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공정확립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여 콕스를 전혀 쓰지 않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으로 선철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많은 전력과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강철생산을 훨씬 늘이고 폐이렁강을 비롯한 합금강들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평간암연계통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 수십년만에 평간암연강판을 성과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주체철생산기술이 확립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획기적인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질소비료생산공정의 개건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 주체비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으며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여러가지 화학제품의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였다. 탄소하나화학공업에 기초한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연백제염소에서 수십개소의 지하초염수추공을 완성하고 생산량과 염도를 확정함으로써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정보당 80t이상의 소금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석탄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찬 과학기술적성과들도 이룩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제작도입하고 갱내CT탐사장치를 개발도입하여 굴진과 채탄작업의 과학화실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 500여만t의 석탄매장량을 새롭게 확정하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갱물환식라선레루삭도와 갱내물환식삭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석탄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SR전동기를 결합한 탄광전차, 적재기, 착암기제작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여 전압, 주파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작업할수 있는 채취설비들을 개발할수 있게 되였으며 공기부합식선탄기가 제작도입되여 질좋은 석탄을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동발문제해결의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됨으로써 탄광들에서 나무의존도를 낮출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석탄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많이 해결된 결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요구되는 석탄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밖에도 전국적인 산불감시정보봉사체계의 확립, 조직배양에 의한 《애국풀》의 증식기술확립,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의 확립, 전방항어군탐지기의 개발과 도입, 세계적수준의 천연사과향의 개발, 발효법에 의한 식물성물고기먹이제조기술의 완성, 구두생산용접착제와 발포제 개발 등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였다.

하여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가 열려지게 되였다. 이처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이 있다.

온 한해를 들끓게 한 전사회적인 과학기술열풍

올해는 새로 창조된 과학기술성과들을 전사회적으로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전시회, 발표회 등이 끊임없이 진행된것으로 하여 온 한해동안 과학기술열풍으로 들끓었다. 당의 온정속에 흡족하게 일떠선 세상에 둘도 없는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과학기술보급 및 교류활동들이 전례없이 활발히 진행되여 과학기술중시의 사회적분위기는 날과 달을 이어가며 년말까지 고조되였다.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과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지적제품전람회와 같은 큰 규모의 축전과 전시회, 전람회뿐아니라 자연에네르기개발과 리용, 에네르기절약을 위한 과학기술성과전시회,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16, 전국주민연료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및 발표회, 전국로보트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를 비롯한 부문별과학기술발표회, 전시회, 토론회, 보여주기사업들이 광범히 진행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이 제때에 보급되였으며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가 전국각지에 그물처럼 뻗어나감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이 물이 흐르듯이 아래로 거침없이 보급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과학기술심의사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원격화상심의체계가 구축되여 새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과학기술심의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하여 과학기술성과등록건수가 1.3배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발명건수도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 그 과정에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경공업부문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경기는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술혁신전의목표들을 높이 세우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땔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전국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과 애국심이 남김없이 분출되였다.

위대한 당이 펼쳐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격전, 총돌격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올해에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핵수십개 단위들이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쟁취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룩되였다.

온 나라에 불어치는 과학기술의 세찬 열풍!

이것은 과학기술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확고히 전변시키고 과학기술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구상과 그 구현인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당 과학기술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올해는 정녕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결사옹위하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해가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있기에 첨단과학기술의 그 어떤 요새도 반드시 점령할수 있고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다져준 참으로 뜻깊은 한해였다.

하여 이 한해를 크나큰 격동속에 다시금 돌이켜보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 만세!

본사기자 강철웅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간다.
본사기자 찍음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남포항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27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로씨야국적선박 《따간로가》호, 월남국적선박 《풍남1》호, 빠나마국적선박 《타이 안》호, 저메이커국적선박 《뉴 글로빌》호, 피지국적선박 《젠루》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며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대적도 단배에 쳐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신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조선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과 세인을 경탄케 하는 자랑찬 성과들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의 특출한 령도실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의 부강번영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학생들의 피아노연주회 진행

주체106(2017)년 새해에 즈음한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한일영, 마신아학생들의 피아노연주회가 문화성과 주조 로씨아련방대사관의 공동명의로 27일에 진행되였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된 연주회를 오영철 문화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예술교육기관 교원, 학생들과 알렉싼드르 마페고라 로씨아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관람하였다.

피아노독주 《세상에 부럼없어라》로 시작된 연주회에는 《내가 지켜선 조국》, 《바다만풍가》, 《호두까기 인형》, 《또까따》를 비롯한 우리 나라와 로씨야의 작품들이 울렸다.

여러 국제콩쿨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출연자들은 높은 예술성과 세련되고 재치있는 연주기교를 보여주며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속에 마음껏 꽃피워온 자기들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정말 훌륭한 일군입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한 일군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명산군산림경영소 양묘작업반에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된데는 군김찰소일군인 김광식동무의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슴배여있습니다.

산림경영소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 자체의 힘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새로 건설할 때였습니다.

건설자재가 부족하여 공사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김광식동무는 자기가 직접 세멘트와 철근을 비롯한 많은 자재들을 해결하여 공사를 제기일에 끝낼수 있게 전정을 다해 도와주었으며 과학기술보급실에 10여조의 책걸상도 훌륭히 갖추어주고 꼴뜨리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런이 아닙니다.

산림북구전투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우리 작업반원들이 가정일을 두고 근심하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많은 생활필수품도 마련하여 집집마다 가져다준 그를 작업반원들 누구나 존경하고있습니다.

저는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활동으로 받들어 당정책관철에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이런 훌륭한 일군을 널리 자랑하고싶습니다.

명산군산림경영소 양묘작업반
기술원 박영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주제
미술전시회 개막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주제 미술전시회가 26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각지 미술창작가들이 내놓은 조선화, 유화, 수예 등 7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화 《전화위복의 창조자들》, 《북부의 철길복구자들》, 유화 《단숨에》, 《북변의 청년건설자》, 조각 《군인건설자》, 아크릴화 《축조공》을 비롯한 작품들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함에 대한 당의 호소에 일심의 뢰성으로 화답하며 주체조선의 백승의 기상, 영웅적인민의 백절불굴의 기개를 만천하에 떨쳐가는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하였다.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킨 당의 결심에 열렬히 호응해나선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설비, 자재 등을 긴급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증송경쟁을 과감히 벌리는 화폭이 조선화 《사랑을 싣고》, 《수송전투로 들끓는 흥남항》, 유화 《북부전선원호로 들끓는 청진항》, 수채화 《북부전선으로》, 아크릴화 《더 많은 물동량을 북부전선으로》 등에 반영되여있다.

전대미문의 대재앙이 휩쓸었던 조국의 북변천리에 변듯하게 일떠선 사회주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의 모습을 담은 조선화 《북부의 새 마을》, 《북변땅의 새 보금자리》, 수예 《북변땅의 아침》, 수채화 《새집들이기쁨》, 조각 《따뜻한 정》의 작품들도 전시되였다.

유화 《아이들은 야영소로》와 판화 《즐거운 야영소로》는 류례없는 대재난을 당한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야영길에 오른 모습을 통하여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을 전화위복의 새 전설의 주인공들로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을 감명깊게 전하고있다.

이날 문화예술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미술전시회는 주체106(2017)년 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충정으로 빛나는 삶의 자욱을 새기며
※ 신의주시 신원동 59인민반 최선옥동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장군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7월초 어느날 밤이였다.

신의주시 신원동에 있는 최선옥동무의 집에서는 늦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온 가족이 모여앉아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보내줄 관리도구들을 준비하고있었다.

향기그윽한 꽃다발이며 한점한점의 관리도구들을 포장하는 최선옥동무의 마음속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태하처럼 흐르고있었다.

최선옥동무의 가정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기 시작한데는 남다른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최진연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조국의 귀중함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한 잊지 못할 시절이였다.

당시 그가 살던 본제연선지구의 마을은 작은 마을이였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최진연마을의 군관자녀들이 근심걱정없이 공부하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었고 해마다 사랑의 선물이며 교구비품을 제일먼저 안겨주고 훌륭한 악기들까지 보내주었다.

이런 행복한 생활과정에 그는 이 땅의 친만아들딸들에게 돌려주는 우리 당의 사랑을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였고 최진연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가는 어버지와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당과 수령을 받드는 길에 충정을 바치갈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군 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최선옥동무였기에 그는 총잡은 군인과 일생을 같이할것을 결심하고 군관의 안해가 되였으며 그후 제대된 남편과 함께 신의주시에 생활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을 때는 제일먼저 역전광장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그는 한몸이 성새, 방패가 되여 수령님을 결사보위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최선옥동무는 어느 한 공장에서 로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해마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 광명성절을 비롯하여 국가적명절날들과 기념일마다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관리도구들을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찾아가군 하였다.

해마다 관리도구들을 마련해가지고 수백리길을 오간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그가 힘겨워할 때마다 총잡은 그 시절 자기의 할선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고 어려차례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지닌 남편 백철수동무가 용기를 북돋아주며 고무해주군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을 때 최선옥동무는 피눈물을 삼키며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으며 충정의 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갔다.

그는 아들 백명국동무와 함께 해마다 어려차례나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갔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55차에 걸쳐 50여종에 5 900여점의 관리도구들을 대성산혁명렬사릉에 기증하면서 충정의 자욱을 뚜렷하게 새겨왔다.

최선옥동무는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온 다음에도 매일 새벽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보위하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주변관리사업을 스스로 맡아하면서 자식들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의 기둥을 억세게 세워주고있다.

최선옥동무는 오늘도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신념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충정으로 빛나는 삶의 자욱을 뚜렷하게 새겨가고있다.

특파기자 송항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자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긴 뜻깊은 한해

본보기창조열풍과 더불어 비약하는 주체교육

모든 교육기관들의 면모가 눈에 띄게 일신되고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비약의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라선 뜻깊은 해인 2016년.

돌이켜보면 올해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다기능화된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워주시고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무문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과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새 세기 교육혁명의 승리의 결승선, 인재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줄달음쳐온 자랑찬 한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질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야 합니다.》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을 최단기간내에 건설하기 위한 창조와 투쟁의 또 한해가 흘러갔다. 그 나날 교육무문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였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언급할것은 기성의 낡은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우리 식의 새것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온 나라에 세차게 지펴올린 본보기창조열풍이다.

지난 4월 농촌학교의 훌륭한 본보기로서 숙천군 정화고급중학교가 현대적으로 일떠선 사실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얼마전까지 낡은 단층건물이였던 그 학교가 불과 한달남짓한 사이에 현대적건축미를 뽐내는 2층짜리 교사 두동과 체육관, 수영장을 갖춘 멋있이 학교로,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보장체계까지 갖추어진 도시부럽지 않은 학교로 전변된 현실은 자력자강의 창조정신으로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음을 웅변으로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각 지역들에서 농촌학교의 본보기를 일떠세우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온천군 청대고급중학교와 토산군 미당소학교가 지난날의 낡은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멋들어진 2, 3층교사로 훌륭히 일떠섰으며 황주군에서 삼혼고급중학교의 반월분교를, 온산군에서 정지고급중학교의 절골분교를, 온천군 덕천협동농장에서 유치원을 도시아이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현대적으로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춘 우리 식의 새로운 본보기학교, 본보기분교, 본보기유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여났다.

결과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움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는 눈부신 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게 되였다.

본보기창조사업은 전당, 전국, 전사회적인 지원열풍속에 날로 더욱 힘차게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과시하게 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신 평양중등학원을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삼고 모든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전당, 전국,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과 10월의 학교지원월간 전국의 모든 후원단체들에서 담당한 학교들을 본보기학교들처럼 꾸려주기 위해 마련한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기재, 교구비품 등은 천수백종,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엄혹한 대재난을 당한 북부피해지역의 교육기관들을 세상이 부러워할 본보기학교, 유치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보내준 물자들은 무려 3 800여종에 112만여점에 달한다.

이처럼 놀라운 성과자료들을 놓고보아도 새로운 본보기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는것으로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추동해갈 온 나라 인민의 드높은 열의를 잘 알수 있다.

도, 시, 구역(군)들마다에서 본보기들을 창조하여 자기 지역의 교육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이 경쟁적으로 힘차게 고조된 가운데 김기송회명고급중학교와 서성구역 장경소학교, 정천구역 봉학소학교, 선교구역 룡곡고급중학교, 삼지연군 삼지연고급중학교, 문천시 영웅문천고급중학교, 만포시 고산고급중학교, 향산군 향산고급중학교, 정성시 종덕소학교, 숙천군 은덕소학교,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와 농촌의 학교들이 본보기학교들로 전변되였다.

이와 함께 본보기학교들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면서 새로운 본보기들을 면속 창조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힘차게 벌어졌다.

그 과정에 올해 전국적으로 수만개의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들로 전변되였으며 수천개의 실험실습실들이 현대화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또한 평양제1중학교에서 전자칠판을 리용한 실리있고 우월한 새 교육방법들을 창조하고 수천리 먼길을 오가며 그것을 온 나라에 도입일반화한것처럼 앞선 단위는 뒤선 단위를 찾아다니면서 이끌어주고 뒤떨어진 학교는 앞선 학교를 따라앞서기 위해 열배, 백배로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라고, 뿌리가 튼튼해야 총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야 대학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지난 한해동안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일으킨 전례없는 본보기창조열풍으로 하여 나라의 중등일반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였으며 결과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는 커다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올해 교육부문에서 일으킨 전례없는 본보기창조열풍과 더불어 우리의 주체교육은 세계를 향하여 더 빨리, 더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수재와 인재가 바다를 이룰 그날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본사기자 한경철

인민적보건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보건무문에서도 사회주의보건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는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올해에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콤퓨터화되고 병원들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산소를 받아갈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보건산소공장과 우리 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치료기능과 안경봉사기능을 갖춘 류경안과종합병원이 훌륭히 일떠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몸소 그 터전도 잡아주시고 여러차에 찾아오시여 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상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솟아난 보건산소공장과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사회주의문명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발전면모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문명수준을 웅변으로 보여줄수 있는 또 하나의 축도로 된다.

당에 대한 믿음과 충정과 인민에 대한 지극한 정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 보건일군들의 헌신적인 기풍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을 비롯한 주요전선들에서 기적적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결사전쟁의 투쟁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일제히 전투좌지를 차지한 보건성의 일군들과 현장치료대성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들이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단 3일동안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으며 파괴된 보건시설들을 복구정비하고 정상적인 치료예방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가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수많은 의료품들이 긴급수송되여 해당 지역들에 시급히 공급되는것과 함께 피해지역으로 급파된 전투부대들에 대한 현장치료사업도 기동성있게 진행되였다.

수도의 중앙병원들로부터 농촌리의 말단의료봉사기지들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치료예방기관들과 위생방역기관들을 보건의학적요구와 새 세기의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귀침혈색조정가에 의한 우리 식의 질병예보진단체계와 급성호흡기비루스성전염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항비루스제가 개발된것을 비롯하여 인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의학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나라의 약학발전을 고무추동하게 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해설서》가 편찬되여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보건무문 일군들속에서 환자를 위해 자신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고 친혈육이 되여 보살펴주는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꽃펴나 사회주의대화원의 향기를 더해주었다.

우리의 보건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올해를 불타는 충정과 헌신으로 이어온 보건무문의 전체 일군들은 앞으로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향미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안아올린 금메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은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안아올리고 조국의 영예를 긍지높이 빛내이였다.

지난해에 진행된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뜻하지 않게 심한 부상을 당한 조건에서도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주체조선의 체육인들이 지니고있는 정신세계가 어떤것인가를 미국땅에서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림정심선수는 2012년의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이어 올해의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력기경기에서도 그것도 서로 다른 몸무게급경기에서 누구도 견줄수 없는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승함으로써 2중올림픽경기대회금메달수상자로 위훈떨치였다.

2중세계선수권보유자인 리세광선수도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기계체조 남자조마운동경기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명명된 난도높은 《리세광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올림픽경기대회금메달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얼마전에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하였을 때 국제축구련맹인터네트홈페지는 《2016년은 조선축구의 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요르단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조선팀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조선이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계속하여 글에서는 조선녀자축구팀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21개의 골을 넣어 자기의 공격식축구를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세계가 격찬한것처럼 올해에 우리의 새 세대 녀자축구선수들은 세계를 디디고 오를수 있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전술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훈련열풍속에 쌓은 실력을 당당히 과시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한해에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다 우승하는 나라로 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새 기록창조의 불바람은 태권도무대에서도 세차게 일어번졌다.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녀자선수들이 출전한 모든 세부종목경기들에서 100% 우승하면서 17개의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자랑을 떨친것을 비롯하여 우리 태권도선수들은 올해에도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체육인들은 2016년 세계이동목표사격선수권대회, 2016년 메라노컵빙상휘겨경기대회, 2016년 상려컵항주국제도시바둑경기대회, 2016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유술선수권대회, 2016년 아시아청소년학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국제경기들에서도 영예의 1위를 차지함으로써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 북부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창조를 위한 천만군민의 총진군길에 필승의 기상을 더해주었다.

뜻깊은 올해의 자랑찬 국제경기성과를 통하여 온 나라 체육인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의 자강력을 억세게 다져나갈 때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날을 더욱 앞당길수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위대한 당이 밝혀준 비약의 지름길따라 우리 식의 특기기술과 전법을 완성하기 위한 각지 체육인들의 대고조전군과 더불어 민족의 기개를 누리에 떨치는 조선의 금메달은 더욱 환히 빛나게 솟아오를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만리마시대의 진군을 추동한 문학예술의 포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이 들고일어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된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뜻깊은 올해에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는 성과작들이 련이어 나오고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진군가가 온 나라를 들썩하게 울리였다.

소설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한 총서 《불멸의 항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출항》, 《야전렬차》, 단편소설집 《눈부신 강산》, 혁명전설총서 《태평양을 잠재우다》 등을 훌륭히 완성하여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었다.

무대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도 새 세기의 첫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성과적으로 창작완성한데 이어 연극 《혈맹》,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무용조곡 《황금의 내나라》, 종합교예 《위대한 당에 영광을》, 《만리마의 나래펴고》, 인형극 《잘지 못한 수레》를 비롯한 많은 무대예술작품들을 훌륭히 창작완성하여 만리마시대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더해주었다.

당이 바라고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명작, 력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문학예술부문 창작가들의 불같은 열정과 노력에 의하여 만리마속도로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와 천만군민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노래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인민의 축원》,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우리의 신념》, 《우리는 만리마기수》, 《청춘송가》, 《전진하는 사회주의》 등이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노래, 투쟁의 진군가로 대고조전역들마다에서 높이 울려퍼졌다.

장편서사시 《태양의 하늘》, 시초 《북부전선종군시초》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한 천만군민의 혼연일체의 모습을 반영한 시작품들, 장편소설 《바다의 환상곡》,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 중편소설 《아름다운 삶》을 비롯하여 오늘의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소설작품들도 훌륭히 창작완성되여 우리 문단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도 영상미술작품창작과 선전화작품창작, 현실주제의 미술작품창작, 산업미술도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중앙동물원과 중앙계급교양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기여하였다.

무대예술부문과 군중예술부문, 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 예술선전대원, 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중요전구들마다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혁명적랑만과 정서,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였다.

무대예술부문과 군중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 예술선전대원,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려명거리건설장과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2만여개의 단위들에 나가 5만여회의 현장경제선동과 무대공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전당, 전군, 전민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기적적승리에로 부른 위대한 당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여러 단위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화선식경제선동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감격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게 하였으며 조국의 북변땅에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미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교원들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서 6 000여점의 내무장식그림들을 완성하여 피해지역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만리마시대의 진군을 추동한 문학예술의 포성은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이 나래치게 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되였다.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에 넘쳐있는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앞으로도 시대를 선도하고 천만의 심장에 불을 다는 명작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올것이며 투쟁의 노래, 승리의 진군가는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병사들의 어머니, 병사들의 누나

개천직물공장 지배인 리화숙동무와 그의 딸 최혜련동무에 대한 이야기

병사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라고 부르는 모녀가 개천땅에 살고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바뀌여도 이들모녀에 대한 중대군인들의 정깊은 부름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전리방선초소의 군인들곁에 있고 언제나 군인들의 심장속에 사는 개천직물공장 지배인 리화숙동무와 그의 딸인 개천시련의봉사관리소 로동자 최혜련동무, 그들모녀가 걸어온 길은 인민군대를 성심성의껏 원호하는것을 인생의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의 원군사에 또 하나의 값높은 자욱을 새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군대와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리화숙동무를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고 년말생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는 개천직물공장의 생산현장에서 만났다. 친혈육의 정을 뛰은 중대군인들에게는 그가 어머니였지만 공장에서는 누구보다 드바쁜 지배인이였던것이다.

공장일도 앞장에서 할때 군인들의 어머니노릇도 할때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하는 우리에게 리화숙동무는 어느것이나 다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니 힘들것도 어려울것도 없다고 하는것이였다.

어려해진 리화숙동무는 어느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군인들중 한 병사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몸을 다쳐 병원에 실려온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버지가 전쟁로병이고 어미 세상을 떠난 남편도 인민군군관이였으며 맏딸 역시 군대에 내보낸 인민군후방가족인 리화숙동무는 박철수라는 그 병사의 일에 제도모르게 마음을 쓰게 되였다. 하여 그는 그 병사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일군들을 찾아가 자기가 도울 일이 없는가고 물었다. 그 시각 그는 자기의 피와 살까지도 다 바칠 결심이였다.

의료일군들도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떨쳐나섰다. 리화숙동무는 그들의 치료사업을 적극 도왔다. 당시 중학생이였던 둘째딸 최혜련도 리화숙동무의 당부대로 박철수병사에게 영양식료품을 애써 마련해가지고 병원을 찾아오군 하였다.

병사는 끝끝내 전장을 회복하고 조국보위초소에 다시 섰다. 헤여지기에 앞서 리화숙동무는 자기 딸의 군사우편함주소가 적힌 수첩을 박철수동무에게 내밀었다.

《여기에 철수동무의 주소도 적으라구.》

그때부터 리화숙동무는 조국보위초소에 선 딸에게 소식을 전할 때마다 박철수군인에게도 전쟁어린 문안편지와 함께 름름이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보내주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리화숙, 최혜련동무들은 구대원이 된 기쁜 소식을 담은 박철수동무의 편지를 받았다. 철수가 신대원들을 거느린 어엿한 구대원이 되였구나 하고 흐뭇함을 금치 못하던 리화숙동무의 뇌리에 얼굴도 모르는 신입병사들걱정이 불쑥 났다.

다들 몸은 튼튼한지, 병사생활의 첫시작을 어떻게 떼는지…

그날 저녁 리화숙동무는 딸에게 이렇게 오금을 박았다.

《이제부터는 중대에 보낼 원호물자를 더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되여 우연히 알게 된 한 병사를 위해 지성을 기울이던 일이 그 병사의 중대를 위한 일로 번져지게 되였다.

중대에 앓는 병사, 몸이 약한 병사가 한사람도 없게 하자고 이들모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것은 그 누가 알지 못하는 이들가정의 중대한 목표이고 계획이였다.

어머니와 딸이 다 직장생활을 하는 조건에서 원호물자를 마련하는 시간이란 밤시간과 휴식일들이였다. 약초를 손질하느라 밤새워 질구질을 하고 집집승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이른새벽의 이슬길을 남먼저 헤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보낸 원호물자를 받아안고 기뻐할 중대군인들을 그려보며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였다.

멋혜진 설명절을 앞두고 중대군인들에게 보낼 원호물자를 마련하던 리화숙동무는 허리병이 심하게 도져 성천군에 자리잡은 료양소로 떠나게 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개천시련의봉사관리소에서 로동자로 일하던 최혜련동무는 함께 료양소에 가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는 딸을 리화숙동무는 막무가내로 밀막았다.

《안된다. 우리 집에야 이 어머니의 병간호보다 더 중대한 일이 있지 않느냐. 너 혼자서라도 예정한대로 원호물자를 확마련해야 한다.》

최혜련동무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하게 고여올랐다.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병때문에 늘 마음을 놓지 못한 그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애원하다싶이 말했다. 어머니병을 다 치료한 다음 더 많은 원호물자를 장만하여 보내주면 안되겠는가고.

그 자리에 있던 개천직물공장의 종업원 양선미동무가 혜련동무의 정상을 보기가 민망스러워 자기가 대신 원호물자를 마련하겠으니 혜련동무를 료양소에 데리고가라고 하였을 때였다. 리화숙동무는 말하였다.

《군대를 위한 일에 제 집사정을 앞세우거나 누가 대신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원호사업은 안하는것보다 못해요.》

집에 남아 가지가지의 원호물자를 마련하면서 자신보다도 군인들을 더 위하는 어머니의 진정을 깨달은 최혜련동무는 그후 군대원호사업에 자신의 재끗한 량심과 불같은 열정을 바쳐갔다.

이 중대 군인들치고 이들모녀가 보내준 따스한 토끼털배띠의 덕을 입지 않은 병사가 없다.

그 나날 중대군인들의 가슴속에는 개천땅의 모녀의 정깊은 모습이 깊이 자리잡았다. 고향집으로 보낸 중대군인들의 편지마다에는 자기들의 친어머니, 친누나가 된 이들모녀에 대한 이야기가 실리군 하였다.

지난 여름 어느날 한 사람이 그들의 집문을 두드렸다. 처음 보는 사람이였다. 누군가고, 어떻게 왔는가고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그는 말했다.

《내가 김진학병사의 아버지입니다.》

김진학은 리화숙모녀가 지성을 다해 원호하는 중대의 병사였다.

함남땅에서부터 수백리 먼길을 달려온 병사의 아버지는 받은 친혁이라도 만난듯 반가움을 금치 못하는 리화숙, 최혜련동무들앞에 머리를 깊이 수그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숱한 원군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처럼 온 중대군인들의 어머니, 누나가 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친자식, 친동생처럼 돌보는 사람들은 처음입니다. 부디 내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감사의 인사를 하는 병사의 아버지를 리화숙동무는 다급히 만류하였다. 그러고나서 말했다.

《어머니나 누이가 제 아들, 제 동생을 돌봐준 대가로 인사를 받는 법도 있습니까.》

티없이 해맑은 그들앞에서 병사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토록 아름다울수 있소?!》…

자기 아들의 친혈육이 된 이들모녀의 이야기에 감동되여 출장길에 그들을 찾아왔던 병사의 부모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인류력사는 수많은 인간애의 진실을 기록해오고있지만 선군시대 인간들이 지닌 병사들에 대한 사랑처럼 한없이 지극하고 순결하며 숭고한것은 없다. 그것은 항일의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의 가슴속에 깨뜨려주신 가장 소중한 애국의 감정이며 초소의 병사들은 나의 아들딸들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바람세찬 전선길을 걸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뜨거운 열과 정을 다 기울이시며 가르쳐주신 위대한 인간애이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 아름답게 만발하고있다.

군인들을 제 한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리화숙동무의 진정에 끌려 개천직물공장의 많은 종업원들이 군대일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참된 애국자들로 자라났다.

* *

병사들의 어머니, 병사들의 누나!

이 부름과 더불어 선군시대의 참되고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는 사람들이 어찌 개천땅의 평범한 모녀뿐이며 그런 어머니와 누나를 둔 인민군군인들이 어찌 그 중대 하나뿐이겠는가.

조국의 전리방선에 그 정깊은 부름이 울리고있다.

어머니, 누나라는 부름은 한 가정에 울리지만 병사들의 어머니, 병사들의 누나라는 값높은 부름은 조국의 전리방선을 진감하며 시대의 자랑으로 높이 울린다.

그렇다. 조국방선초소에는 조국수호의 총을 잡은 병사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서로 나누는 우리 인민이 언제나 함께 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조선의 힘 꺾을자 이 세상에 없다

올해에도 우리는 세계에서 제왕행세를 하며 인류자주위업에 도전해나선 미국과의 힘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였다.

세계는 조선의 힘을 꺾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았다. 강위력한 힘으로 초대국을 제압하는 조선에 대한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가 온 한해동안 세계를 진감하였다.

2016년 첫날부터 세계의 초점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였다. 만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세계를 격동시켜온 조선이 또 어떤 사변으로 미국에 참패를 안길것인가 하는것때문이였다.

온 세상 사람들이 조선을 주시하고있던 지난 1월초 우리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조선은 절심하면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계에 과시한 특대사변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천백배로 북돋아준 민족사적페거였다. 수소탄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반공화국핵위협공갈에 미쳐날뛰던 미국에 강타를 안기였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였다.

세계의 핵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소탄을 틀어쥔 우리 공화국은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섰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속에서는 불안과 공포의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미국이 저들의 패배상을 가리우고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짝아내릴 심산으로 핵보유를 인정할수 없다느니, 수소탄시험이 아니라 증폭핵분렬탄시험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비린청을 돋구었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백빠진자들의 넋두리에 불과하였다.

지구가 끓었다. 많은 국제정세분석가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평하였다.

《2016년의 장엄한 서곡으로 울린 조선의 수소탄시험의 뢰성은 조미대결전에서 승자는 역시 조선이며 패자는 미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한해동안 조선이 미국을 정신차릴새 없이 닦새길것이며 조선이 첫 수소탄폭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여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만들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공허한 예측이 아니였다. 실지 그 후 사태는 그대로 번져졌다.

올해 첫시작부터 우리의 된타격을 받고 얼혼이 나간 미국은 무분별한 도박에 매달렸다.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제재봉쇄》를 실현한다는것이였다. 미국은 방대한 해무장장비들과 특수작전부력을 남조선에 들이밀었으며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에서 그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었다. 그야말로 우리에 대한 무지의 극치였다.

미국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다. 그런 허세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였다.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며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악하는 미국의 핵전쟁도발광증을 짤짱을 씨고 앉아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우리가 아니였다.

우리 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하였다. 미국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것으로 전환하였다. 해외침략무력이 투입되는 적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것을 가상하여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등으로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의 위력과 강인담대한 배짱과 담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우리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에 보다 위력한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본토를 비롯한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소굴이든 타격권안에 두고 이 행성에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수 있게 되였다.

미국은 그래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있는 길은 자중, 자숙밖에 없다는 우리의 충고를 심중히 대하지 않고 더 도전적으로 나왔다.

6월 17일 미국은 괌도에 있는 미제침략군 8공군소속 《B-52H》전략폭격기편대를 먼지리항법비행 및 전략대상물타격훈련의 미명하에 남조선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연습을 강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13일에는 상대측에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미씨씨피》호핵동력잠수함을 남조선 부산항에 끌어들이였다. 2개의 미핵항공모함타격단이 조선반도주변수역을 맴돌고있던 때에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이 남조선에 투입된것은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조성되였다. 엄혹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즉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주체조선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이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세계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우리의 《화성-10》발사를 특대소식으로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군사전문가들은 고각발사는 뛰여난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고각발사시험을 한 메가 없다, 하지만 조선은 고각발사체계로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시험을 성공시켰다, 기적이며 입대 사변이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조미대결의 전략적구도가 완전히 바뀌여졌다. 동방의 핵강국으로서의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는 더욱 공고화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되였으며 항시적인 핵악몽에 시달리게 되였다. 미국내에서는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보다 본토안전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압박보다 협상마련이 근본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대조선적대의식이 골수에 뱀 미집권세력은 여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다시 《유엔결의위반》이니, 《정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니 뭐니 하면서 못되게 놀아댔다.

8월에 들어와 《B-52H》전략폭격기들이 전개되여있는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B-1B》, 《B-2A》전략폭격기들을 더 들이밀고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것이라는것을 내놓고 공개하였다. 련이어 남조선에서 방대한 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미국을 핵으로 완전히 제압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다.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공화국이 핵공격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강국이며 미국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우리의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여져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잔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놓을수 있게 되였다. 아무때나 마음먹은대로 미국의 뒤통수에 멸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되였다.

지난 9월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핵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되고 타격력이 훨씬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대로 필요한만큼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쉴것은 다 쉬고 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판문까지 통과한 이 경이적인 사실앞에 세계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 뒤르끼에신문 《데일리 싸바호》, 《뒤리에트 데일리 뉴스》, 영국신문 《가디언》, 중국의 홍콩 《대공보》 등은 미국은 군사적힘과 제재봉쇄로 조선을 고립압살하려 하였다, 그것은 오히려 조선이 핵무력고도화에로 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1월 4차 핵시험후 조선이 8개월만에 또다시 핵시험을 진행한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조선은 미국본토를 실지로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미국에는 이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미국의 대조선전략은 완전히 실패하였다라고 전하였다.

미국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대참패를 당하였다. 우리는 세계에서 특수국가로 자처하며 오만방자하게 제멋대로 놀아대는 미국을 세계의 면전에서 보기 좋게 제압하고 통쾌한 대승리를 이룩하였다. 미국은 깨깨 망신을 당하였다.

우리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미국이 한가닥 기대를 걸고있는 제재와 봉쇄도 이것을 막지 못하였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물론이고 경제강국건설도 멈춰세우지 못하였다. 아무런 백도 주지 못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책동에 매달렸지만 우리는 그속에서도 려명거리건설을 선포하고 오늘은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하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결단을 내리였을 때 적대세력들은 이미 우리가 강력한 제재와 봉쇄속에서 시작된 려명거리건설에서 맥을 다 뽑았기때문에 복구는 실현불가능하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우리의 전진이 좌절되기를 고대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개꿈으로 만들어놓았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해나가는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은 만난을 파감히 박차며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국적으로 20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고 북부피해지역을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켜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무한대한 국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이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우리는 다시한번 세계에 선언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쳐도 우리는 무섭지 않다.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내 조국은 두려움을 모른다.

그 어떤 제재나 봉쇄, 군사적압력으로도 우리를 놀래우지 못한다. 위대한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이다.

세계는 앞으로 동방의 핵강국, 백두산대국이 어떻게 총대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국을 건설하는가를, 어떻게 자주의 등대, 정의와 진리의 상징으로 빛나는가를 가슴후련히 보게 될것이다.

리 학 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우리를 반대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놀음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워싱톤에서 미국-남조선《확장억제전략협의그루빠》회의가 진행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지난 10월 《확장억제전략협의그루빠》라는것을 내오기로 합의한데 이어 이번에 그 첫 회의를 벌려놓은것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엄중한 도발책동이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위협》을 걸고 미전략자산들의 남조선순환배치를 검토한것은 이미전부터 감행하여오던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정례화, 제도화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해보려는 극히 위험한 시도로 된다.

미국은 지금 최악의 정치위기에 허덕이는 남조선괴뢰들을 바싹 틀어쥐고 군사적으로 더욱 예속시키는 한편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형성과 아시아판《나토》조직을 통하여 경쟁국가들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계속 확보하는것으로 저들의 제권적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최근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들이 핵잠수함건조에 대하여 떠든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돌격대, 하수인으로 나서려는 속심의 명백한 발로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에 대하여 《위협》이요 뭐요 하고있지만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지역정세불안정을 초래하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오늘의 정세상황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심과 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정확하였는가를 투철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조선로동당의 병진사상과 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정치난쟁이들의 극악하고 지졸한 행위

일본이 가나가와현의 5개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학교들이 우리와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력사교과서들에 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것이 그 리유이다. 그야말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재일조선학교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시기 강제련행, 람치되여 일본에 끌려가 죽음과 고역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 민족교육을 받는 곳이다.

일본당국자들에게 리끌만 한 량심이라도 있다면 과거잘못에 대한 반성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인도주의의 견지에서도 조선인학생들에게 민족교육권리와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마땅한 의무이며 국가적책임이다.

일본당국은 총련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들의 교육내용을 걸고들고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다.

일본에는 조선학교만이 아니라 수십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있다. 이 학교들은 일본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 식의 력사를 배워주고있다. 일본은 이 학교들에 해당한 보조금을 지출하고있다.

다른 외국인학교들의 교육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고의적으로 조선학교의 력사교육만은 문제시하며 시정을 강요하고있다. 유독 조선학교에만 보조금을 낼수 없다고 생떼를 쓰고있다.

명백히 이중기준이며 민족차별이다.

신통히도 일제시기의 동화정책을 방불케 하고있다. 일제는 《동조동근》이니, 《내선일체》니 하면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조선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동화정책을 강행하였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으며 저들의 동화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일본인으로 동화되지 않으면 아예 살아갈수 없게 만들어놓았던것이 당시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일본의 식민지정책이였다.

일본반동들은 저들땅에서 이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의 때옴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하고있다. 교육비까지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책동에 써먹고있다.

황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일본에서 돈이 없으면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학교들에 보조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조선인학생들의 가정들이 무거운 재정적부담을 걸머지게 된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타산하고 조선학교들이 력사교과서를 저들의 요구대로 수정하면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고있다. 여기에는 재일조선인들에게 무거운 재정적부담을 들씌워 심리적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품에서 떼여내려는 고약한 심보가 깔려있다. 일본반동들은 나중에는 자라나는 재일조선인학생들이 조선력사를 아예 모르게 만들어 민족적자부심과 긍지감을 거세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려 하고있다.

역시 총련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적대감을 가지고있는 일본반동들만이 할수 있는 극악한 인권유린범죄행위이며 정치적모략이다.

일본이 과거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지는 못할망정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봉피시켜보려 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과거를 재현해보겠다는것과 같다.

일본은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날로 무모해지고있는 일본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과거범죄와 함께 총대로 단단히 결산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이것을 무심히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 일본에 어떤 후과가 차례지겠는가 하는것을 심중히 따져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강 철 수

박근혜《정부》와 함께 《재단》이 즉시 해산되여야 한다

남조선 정대협이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3일 《화해, 치유재단》의 뻔뻔스러운 사기극중지를 요구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정부》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리행을 위해 조작한 《화해, 치유재단》이 이날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현금지급을 계속하며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 내용의 자료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정부》가 10억엔에 력사를 팔아먹은 때로부터 1년이 되여오는 오늘 버젓이 사업이 잘되여가고있다고 선전하는 그 뻔뻔스러움이 경악할 정도라고 론평은 규탄하였다.

더우기 지금은 《정부》의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국정》운영이 최순실을 비롯한 부패한 권력집단에 의한 대국민사기극으로 판명되고 박근혜가 국민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아안은 준엄한 시국이 아닌가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배상금》, 《치유금》이라는 말장난으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종결지으려 한 굴욕적인 12.28《합의》는 박근혜《정부》의 최대실책중의 하나라고 단죄하였다.

《합의》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최대의 노력》이고 《최선의 결과》라고 거짓말하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한것과 달리 피해자들앞에서는 마치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시작점인것처럼 기만하면서 더우기 돈으로 한을 풀라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며 벌리고있는 사기극에 피해자들과 모든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여전히 일본군성노예범죄에 의한 피해는 배상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치유금》수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올바른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와 함께 이미 초불로 심판당한 12.28《합의》를 들러싼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무효를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무모리음을 모르는 《화해, 치유재단》의 행보는 당장 중단되고 박근혜《정부》와 함께 《재단》이 즉시 해산됨이 마땅하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싸드》배치강행을 위한 뒤거래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이 22일 서울의 롯데호텔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싸드》배치강행을 위해 벌어지는 괴뢰군부와 재벌사이 뒤거래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얼마전 《싸드》배치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손에 넣기 위해 괴뢰국방부는 골프장경영주인 롯데그룹에 부당한 교환조건을 내대며 부지를 내놓을것을 강박하였다.

롯데그룹은 물건보상, 영업, 이주대책 등의 문제에서 괴뢰를 감수하면서까지 괴뢰국방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측이 터무니없이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골프장을 《싸드》배치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특혜를 얻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미국과 일본만을 지켜주고 남조선을 희생시키게 하는 《싸드》배치를 위해 부당하게 뒤거래로 부지확보절차를 밟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명하였다.

롯데측이 당국의 요구대로 《싸드》부지를 제공한다면 국민은 박근혜괴뢰진초불투쟁과 함께 불매운동 등으로 강하게 압박할것이라고 단체는 경고하였다.

단체는 롯데측이 국민이 품고있는 의혹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부당한 뒤거래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황공조종사로조가 파업에 돌입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항공조종사로조가 22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동안 단체는 임금인상안을 제기하고 그 리행에 나설것을 업주측에 요구하였지만 업주측은 부당한 리유로 이를 전면 거부하였다.

격분한 단체는 이날부터 31일까지 파업을 벌릴것을 계획하고 그 실행에 나섰다.

파업과 관련하여 단체는 업주측이 지난 10년간 조종사들의 임금을 계속 낮춘데 대해 성토하고 임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항공조종사로조의 파업은 2005년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남조선에서 계속 전파되고있는 조류독감

25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조류독감이 전지역으로 전파되고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창산시의 한 닭목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닭목장과 주변가금목장들에서 가금류 10만 6 000여마리를 매몰처리한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조류독감의 전파로 그 피해가 계속 확대되여 사회적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가고있다.

미국의 제재에 강경대응할 립장 천명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미국의 제재에 강경히 대응할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미재무성이 20일 로씨야의 7명의 개별적인물들과 수십개의 기관들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시킨것과 관련하여 이를 용납할수 없는 행위로 락인하였다.

미국의 제재가 한두번만 연장되고 확대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이에 강력한 대응조치로 맞서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신》독재가 되살아난 파쑈암흑사회

남조선에서 박정희역도의 피비린내나는 《유신》독재통치가 막을 내린지도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유신》독정의 전기간은 박정희역도가 민족의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도전한 반역의 력사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강요한 범죄의 나날이였다.

5.16군사쿠데타후 총칼독력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박정희역도는 《승공통일》정책이 파산에 직면하고 《정권》위기가 심화되자 1972년에 《유신》체제를 조작하는데 달라붙었다.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땅크와 장갑차, 중무장한 괴뢰군까지 내몰아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 정치활동을 중지시킨 박정희역도는 이어 《유신헌법》이라는것을 조작, 공포하였다. 이것은 박정희역도가 파쑈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자기의 장기집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정치쿠데타였으며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우롱한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였다.

박정희역도는 《유신헌법》을 통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유신질서》에 어긋난다는 구실밑에 그 무엇이든 말살할수 있게 해놓았다. 《국회》나 정당도 자기의 시녀로 만들고 필요하면 어떤 파쑈악법도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하였으며 종신《대통령》을 해먹을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았다.

악명높은 《유신헌법》을 꾸며내여 인민탄압의 무제한한 권한을 한손에 거머쥔 박정희역도는 중세기적인 독압체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열망하는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였다.

박정희역도는 악명높은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각종 살인악법들을 무수히 조작하였다. 그중에서도 《긴급조치》령과 《사회안전법》은 애국자들과 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에게 《유신질서》에 대한 절대적순종만을 강요한것으로 하여 악명을 떨치였다. 역도는 《긴급조치》령을 련발하여 인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려놓고 령장없는 체포와 재판없는 처형도 무시로 감행하였으며 《사회안전법》을 비롯한 살인악법들을 휘둘러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처형하였다. 이날 파쑈교형리들의 야수적인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단사건》들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통일혁명당재건사건,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등 《유신》독재자가 련이어 꾸며낸 모략사건들로 하여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인민들이 체포, 학살되였다.

《유신》독재자는 외세에게 빌붙어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유신》독재자는 북과 남이 채택한 7.4공동성명에 대해 《종이장한장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고 고아대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괴물처럼 틀고앉아있는 저주로운 콩크리트장벽은 오늘도 북남대결과 민족분렬의 상징으로서 박정희역도의 친추에 용납 못할 반통일적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몸서리치는 《유신》파쑈독재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겨놓았다.

비극은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사회에 때도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보고있는 사실이다. 오늘 남조선이 처한 사상 류례없는 파국과 혼란, 대내외적위기는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유신》독재부활에 미쳐날뛴 박근혜역도가 빚어낸 필연적귀결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무례무능한 박근혜의 굴통에는 오로지 《애비의 복권》과 《애비따라하기》, 《독재부활의식》만이 꽉 차있다고 하면서 역도의 통치는 5.16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유신》의 피를 물려받은 박근혜역도는 제 애비의 악독한 통치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쑈독압에 기승을 부리였다.

박근혜역도의 사대매국적기질은 제 애비도 울고갈 정도이다. 역도는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주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미친듯이 걸고들면서 외세와의 공조밑에 반공화국제재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여왔다. 또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괴뢰역도가 미국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싸드》배치에 팔걷고나섬으로써 상전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을 칠성판우에 올려놓는것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로서의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박근혜역도는 일본상전들로부터 몇푼의 돈을 받아먹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에 맞도장을 찍는것으로 《유신》독재자가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매국적인 《협정》을 꾸며낸 천인공노할 죄악을 되풀이하였다.

박근혜역도는 《유신》독재자의 본때대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뒤집어엎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역도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그 리행을 악랄하게 거부한것은 제 애비가 7.4공동성명에 공공연히 반기를 든 그 엄청난 죄악과 결코 다를바 없다.

박근혜역도는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면서 반인민적폭정에 매달려온 극악무도한 파쑈광이다. 세상을 경악케 한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과 《자주민보》강제폐간소동, 《국정교과서제》도입, 《테로방지법》의 채택, 진보적인 문예인사찰사건은 남조선에 제2의 《유신》암흑기가 도래하였다는 명백한 실증이다.

앞에서는 《인류보편의 가치》니, 《자유의 터전》이니 하면서도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깡그리 유린말살하고 남조선을 인권의 참혹한 동토대로 전락시킨 박근혜야말로 인두겁을 쓴 독사같은 악녀이다.

인민들을 기만우롱하고 독단과 전횡을 부리며 파쑈폭압통치를 일삼는 박근혜역도에게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이 터져나올수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으며 반역통치와 부정부패행위에 미쳐날뛰여온 괴뢰역도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분노한 민심의 초불은 외세와 공모결탁하며 악명높은 《유신》독재를 부활시켜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열매를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민족의 통일념원을 철저히 유린해온 박근혜역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인민들의 드높은 의지의 과시이다.

라 설 하

박근혜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ㄱ-61208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